

# 잘 만든 녹지공간 관리는 엉망

### 목포, 하당 도시숲·삼향천 정자 주변 등 잡초 무성하고 쓰레기 쌓여

#### 시민들 “공무원 담당제 실시를”

‘하당 십자형 도시숲’, 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 등 목포시 녹지공간이 대폭 확충돼 시민들로부터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성된 녹지 공간에 대한 사후 관리가 허술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66억을 투입해 조성한 ‘하당 십자형 도시 숲’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려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민선 4·5기 들어 녹지 조성

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난해 목포 포럼이 실시한 목포시정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10명 가운데 5.2명이 ‘공원·녹지 공간 확보’를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녹지가 조성만 됐을 뿐 사후 관리의 손길이 못 미쳐 잡초가 무성하고 전지 작업이 안 돼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일주도로와 평화광장 일대, 양을산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곳은 평일에도 시민들은 물론 운동·등산객들이 주로 찾는 곳이지만 5

월 들어서면서 잡초가 무성하고 수목이 죽자라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삼향천 정자 주변과 산정 농공단지 등은 주말이면 음식물쓰레기가 넘쳐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지만 때때 수가 안 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유지·관리·보수가 안 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경관사업과 공원관리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총 1억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관리 인력도 공공근로를 포함해 총 20명 정도다. 이 같은 예산과 인력으로 13만6000㎡에

달하는 녹지와 38만㎡의 공원을 유지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시민 임 모씨(56·용당동)는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해 한 달에 한번 정도 검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로드맵을 세워 실패를 과약하고 종합 대책을 수립해 부시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속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무안지역 청소년 40여명으로 구성된 연합 오케스트라가 창단식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 무안 청소년 연합 오케스트라 창단

### 초·중학생 42명...초당대 음악과와 협력 내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운영

‘무안 청소년 연합 오케스트라’가 창단됐다.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석원)은 올해 전남도교육청 주관의 ‘2012년 청소년 교육복지 문화센터(활동)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19일 초당대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에서 ‘무안 청소년 연합 오케스트라’ 창단식을 가졌다.

연합 오케스트라는 초당대 음악과(학과장 김연주)와 협력해 관내 초·중학생 42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운영할 계획이다.

박석원 교육장은 “연합오케스트라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교 단위별 오케스트라 조직이 어려운 우리 무안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조직할 것”이라며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음

악적 재능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향악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연합 오케스트라가 무안을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활동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 오케스트라를 총괄 운영하는 초당대 김연주 학과장은 “앞으로 무안 청소년 연합 오케스트라가 한국의, 세계의 오케스트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NH생명·서울대병원 완도 약산서 무료진료

### 주민 500여명 혜택

NH농협생명(대표이사 나동민)과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정희원) 공공의료사업단은 지난 16~18일 완도군 완도농협 약산지점(조합장 정남선)에서 ‘제5차 농촌순회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진료는 내과·안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 등 총 8개 과목의 서울대학교병원 전문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등 상대적

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진료 및 검사는 종합병원급 수준으로 진행되고, 약 제조·투약설비·건강안내 서비스까지 제공해 경제적·지리적 여건상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의료혜택이 취약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의료복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완도농협 약산지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병원과 함께 모두 57차례의 농촌 순회 진료활동을 통해 8만3000여명을 진료했고, 농촌 의료지원사업

협약을 맺은 후 7년간 모두 74억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모싯잎떡 年 10억 매출

### 영광 옥당바이오식품, 목포에 ‘두리담 2호점’ 개장

영광 옥당바이오식품(대표 정정범)이 최근 목포 북항쪽에 모싯잎떡 카페 체인점 ‘두리담 2호점’을 개장했다. 두리담은 ‘여럿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으로 정 대표는 2010년 이 브랜드를 개발했다.

영광군에는 현재 115개의 모싯잎떡집이 성업중이며 매출액이 연 120

억원에 이른다. 옥당바이오식품은 그중 단연 손꼽히는 업체로 연 매출액만 10억원에 달한다.

정 대표는 대도시권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다 귀향, 10년이 넘게 모싯잎떡 가공공장을 운영하던 중 떡 제품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고 대부분 직거래 판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떡 카페를 생각해내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법성포 본점은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외지인들의 방문이 계속 늘어 연 매출이 3억원에 달하고 청주 1호점은 지난해 7월 개장 이후 하루 매출이 100만원을 넘을 정도로 짧은층으로부터 호응이 좋다. 더욱이 신제품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여 모싯잎떡, 모싯떡, 모싯잎떡이 등을 개발, 지역특산물인 모싯잎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떡 수요층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전 북

# 정읍시립박물관 6월 문 연다

### 상설전시실 3개... 유물 500여점 보유 개관기념 ‘조선왕조실록과 정읍’ 특별전



‘광릉 요강꽃’을 아시나요? 멸종위기종 1급인 ‘광릉 요강꽃’은 북주머니란이 최근 국내 최대 서식지인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개화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읍지역 문화자원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정읍 시립박물관’이 다음 달 22일 문을 연다.

총사업비 56억원이 투입된 시립박물관은 부지 1만9862㎡, 건축 연면적 1795㎡(지하 1·지상 2층) 규모로 500여점의 유물(자료)을 보유하고 있다.

시립박물관은 3개의 상설전시실을 이용한 전시외에도 연간 2~3회의 기획 특별전과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1 상설 전시실은 한국 소리문화의 어원을 연 백제가요 정읍사의 역사적·예술적 의의와 특징을 소개하고, 정읍사에서 유래한 수제전을 조명한다.

또한 한국 최초의 가사문학인 ‘상춘곡’과 선비의 풍류문화를 다루면서 유상대를 디오라마로 연출하며 정읍

의 민요, 문학작품, 명인·명창을 소개한다.

특히 고문서, 악기, 서책 등 30여점의 유물과 함께 소리와 영상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정읍의 소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2 상설 전시실은 한국 농악의 본산인 정읍농악의 특징과 역사적인 변천을 소개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다루어진 초기 농악을 둘러싼 쟁점, 보천교와 동학 농민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발전한 정읍농악을 다룬다.

전시실 중앙에는 40여명의 농악공연 모습을 종이 인형으로 연출해 생동감 있는 전시를 꾀할 방침이다.

제3 상설 전시실에서는 정읍의 주요 역사적인 사건과 자료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를 아우르는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 줄 예정이다.

전주박물관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정읍 출토 발굴유물 150여점을 대여하고, ‘임계기사’ 등 기타·복제 유물 20여점도 전시된다.

특히 백제시대의 고사부리성, 고려시대의 불교문화,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와 신종교, 동학농민혁명, 조선왕조실록의 보존성지로서의 정읍을 집중 조명한다.

시립박물관은 개관을 기념해 1592년 6월 22일-조선왕조 실록, 삼천리 여정을 시작하다’는 주제로 조선왕조실록과 정읍과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 특별전을 마련한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정읍의 선비 안의와 손홍록은 전주 경기전에 보관돼 있는 조선왕조 실록과 태조 어진을 내장상으로 6월 22일에 안전하게 옮기고 승려 및 지역민들과 함께 지켰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ks@

## 군수 대출금 이자 탕감

### 전북경찰, 부안 중앙농협 수사 확대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7일 토양검정 사업비 착복 혐의 등을 포착하고 부안 중앙농협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김호수 부안군수 대출금 탕감 부분에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부안 중앙농협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해 실제로 검증도 하지 않은 농지 토양검정 사업을 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해 1년에 6000만원씩 최근까지 6년간 4억여 원을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 부안군수는 지난 1994년 상사농협과 행안농협이 현 부안 중앙농협으로 합병됨으로 각각 상사농협에서 주채무자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1994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이자 1650만원을, 행안농협에서는 보증채무자로 1500만원과 이자 3300만

원을 포함해 8000만원의 원금을 제외한 이자를 17년간 방치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으며, 농협의 자산관리 특수채권(농협보유)으로 지난해 12월에서야 원금만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 중앙농협 관계자는 “김 군수는 사업실패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고, 임모씨의 보증채무는 2011년 3월경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 1500만원만이 변제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 강모(57)씨는 “민선 4기 군수로 당선된 이후 공직자 봉급에서도 회수할 수 있음에도 회수를 하지 않은 것 역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시 평생교육 공모사업 국비 1억4000만원 확보

### 3대 분야 사업 모두 선정

군산시가 올해 평생교육 3대 분야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돼 총 1억4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선정된 공모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등으로, 전북에서 3개 분야 사업에서 모두 지원받은 유일한 지자체가 됐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

교 사업’은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지역 학습자원을 활용해 청소년에게 건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습하는 토요일 교육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역점사업이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문해교육 최우수 운영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는 군산시, 교과부 평생학습대상 수상기관인 시민교육센터, 군산시에서 문해교육을 최초로

시작한 우리배움터가 함께 선정됐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은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생애 재설계 포스트 폴리오는 작성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4050 인생2막, 생애 재설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한 특성을 반영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nogusu@

## 단 신

### 군산시 ‘서부권 도서관’ 명칭 공모

군산시는 서부권 지역 주민의 정보이용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소룡 초등학교 뒤편에 조성하는 ‘서부권 도서관’(지하 1·지상 3층)의 명칭을 공모한다.

도서관 명칭은 지역의 문화 및 특성을 반영하고 부르기 쉬우면서, 새만금시대 문화도시 군산의 위상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함축적 이미지를

가 내제돼야 한다.

공모기간은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3주간으로 군산시청 또는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의 공모문을 참고하여 응모신청서를 작성한 후 메일(choi0070@korea.kr) 또는 Fax(063-466-0367), 우편(군산시 충동로 72)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nogusu@

### 김제 성덕면 남포들녘 우수정보화마을 선정

행정안전부는 최근 김제시 성덕면 남포들녘 정보화마을을 우수마을로, 백산면 수록골 정보화마을을 장려마을로 선정했다.

남포들녘 정보화마을(nampo.invil.org)은 전자상거래 및 농촌 체험마을 등 농가소득 향상에 영향을 주는 등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수록골 정

보화마을(surokgol.invil.org)은 ‘국화 3만 송이가 어우러지는 오색 국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촌마을의 미래발전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정보화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운영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성기자 hnews@

### 정읍시 공영 무료 주차장 1500면 조성

정읍시가 공한지를 활용, 임시공영 무료 주차장을 조성해 도심미관 및 교통환경 개선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500여면의 임시공영 무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질서한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체증과 상가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빈번한 공한지 등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샘골로 상가주변 등의 5개소에 320면을 조성했고, 올해도 46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ks@

### 순창군 88고속도로 주민편의 사업 건의

황송주 순창군수가 지난 17일 88고속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주민편의사업 건의를 위해 한 국도로공사를 방문했다.

황 군수는 장석호 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차량 및 보행자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순창 나들목 교차로에 대한 순창군의 개선안을 건의한데 이어, 기존 순창IC 부근의 도로연접지역 개발사업을 건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